

제주 시인의 제주 대상 시 고찰

강 영 기*

차례

- I. 서론
- II. 시의 인식과 대상
- III. 제주 시인의 제주 대상 시와 그 의미
- IV. 결어

I. 서론

시인의 시 쓰기에 대한 많은 전략에서 시작(詩作)의 대상에 설정은 중요한 부분이다. 시인은 자신의 겪은 생활이나, 자연 환경, 사회 환경 등을 인식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새로운 의미를 시작(詩作)의 대상에 담아낸다. 그러므로 시에 등장하는 시작(詩作)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시인의 문학적 작업을 해석하는 데 필요하다.

제주에서 詩作활동을 하는 작가라면, 일정 부분에서는 분명 제주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제주는 시인에게 시를 쓰게끔 만드는 요소가 된다. 또한 그것은 시의 소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에 관한 글쓰기 혹은 시 쓰기는 분명, 제주문학을 이루는 밑알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 문학의 한 주체인 제주 시인들의 제주 대상 시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려 한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듯 제주는 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명, 제주에서 활동하는 시인에게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 시인들의 제주 대상 시 쓰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주 시인에게 있어서 제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II. 시의 인식과 대상

시는 시인의 인식의 산물이다. 시의 내용은 아무리 사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인의 인식을 매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시인은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주관적 정서를 이야기하며, 그 주관적 정서는 곧 시의 내용을 이룬다.

한편, 시는 현실을 형상적으로 인식한다. ‘형상적 인식’은 시적 인식의 자율성 혹은 특수성이다. 특수성이란 개별성과 보편성을 역동적으로 매개하는 범주이다. 과학과 같은 이론적 인식이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이동하는 데 반해, 예술은 개별성과 보편성 양쪽으로, 그리고 다시 중심적인 특수성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특수성은 보편성이 포함된 개별성 혹은 개별성을 통해 보편성을 드러내는 범주이다. 그러므로 시적 인식의 자율성 혹은 특수성으로서의 형상적 인식은 현실을 개괄·전유하는 데에 있어서 몇몇 독특한 자질로 응용하는데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형상이다.

형상의 자질, 즉 형상을 형상으로 이끄는 주요 요소는 비유(상징이며 알레고리를 포함한 비유 일반)와 묘사(언어로 그리는 그림)로부터 발생하는 ‘이미지’, 서사의 실제인 ‘이야기’, 리듬과 어조로부터 비롯되는 감정(정서 일반을 포함하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각각의 ‘이미지’ ‘이야기’ ‘감정’은 형상의 한 부분일 따름이지 그 전체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인 형상 자체가 그렇듯이 이들 형상의 자질은 각기 유의미한 의식지향, 즉 시적 진리를 시 내부에 함축한다. 그것이 바로 시 인식의 성격이다. 시에서 주제 또는 사상의 표현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시에서 대상은 시에서 그려진 세계이다. 그것은 시의 소재, 관념, 화자의 심리적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의 대상은

자연적 대상, 인간적 대상, 사회·역사적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연적 대상은 인간의 삶의 원천, 배경으로서 관조와 예찬의 대상이거나 생명력을 가진 존재의 표상이 되는 사물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적 대상은 인간의 체험적 생활 감정이나 내면적 사색의 소산으로서 삶의 문제와 관념을 나타낸다. 한편, 사회·역사적 대상은 인간이 처한 특정 시대의 사회·역사적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시의 대상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시적 의미가 된다.

III. 제주 시인의 제주 대상 시와 그 의미

1. 오영호의 제주 대상 시와 그 의미

(1) 제주 자연, 자아 성찰의 매개

오영호의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고요아침, 2005)에 나타는 시작(詩作) 대상 중 하나는 제주 자연이다. 그는 제주 자연이라는 시작(詩作)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시인으로서 시작(詩作)에 대한 반성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인의 의도는 끊임없는 자아 성찰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데 있다. 다음에 제시한 작품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버릴 것
버리지 못한
답답한 마음 끌고

달려온 고내리 바다
당신 앞에 섰습니다.

부황든 오욕칠정이
우르릉 광 광……
부서집니다.

인용 시에 나타나는 “고내리 바다”는 제주의 자연이다. 자연이라는 공간적 의미는 가공되지 않은 순수를 뜻한다. 이러한 순수는 도시 문명을 살아가는 시인에게 마치 절대자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시인은 세속의 욕망을 벗어 던지기 위해 “고내리 바다”를 찾는다.

한편, 인용 시에 등장하는 “우르릉 쿵 쿵”이라는 시 구절은 시인에게, 또는 독자에게 이중적 의미로 다가온다. 그 소리는 단순히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나는 소리가 아니라, 시인에게 “부황든 오욕칠정”이 부서지는 소리가 된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절대자가 인간을 향해 또는 시인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들려주는 깨달음의 소리도 된다. 그래서 시인은 “고내리 바다”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 또는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주의 자연은 시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 또는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아 성찰의 매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작(詩作)의 대상과 의미는 다음에 인용한 시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난다.

한라산 아흔아홉골 석굴암이 나를 불러
모든 일 작파하고 가파른 산길 오른다
발자국 옮길 때마다 명들고 지친 영혼.

육신을 즐겁게만 끌고 온 탐욕의 눈과 귀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참회하라, 참회하라’
불타는 나뭇잎들이 야단법석 한창이다.

—「석굴암의 가을」 전문

“한라산 아흔아홉골 석굴암”이 시인을 부른게 아니라, 시인이 자신의 명들고 지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한라산 아흔아홉골 석굴암”에 오른다. 그러므로 인용 시에 등장하는 “한라산 아흔아홉골 석굴암”은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안식의 공간이 된다. 한편, 시인은 “한라산 아흔아홉골 석굴암”에 이르는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시도 한다. 그것은 낙엽이 들려주는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참회하라, 참회하라”를 통해 나타난다. 한라산 석굴암에 오르기 전까지 시인은 세속의 세계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

은 것만 들으면서 육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그 삶은 “육신을 즐겁게만 끌고 온 탐욕의 눈과 귀”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시인의 삶에서 시인은 낙엽이라는 자연을 통해 절대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이야기는 시인의 시도하는 자아 성찰이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일 작파하고 가파른 산길 오를 수 있다. 시인의 이처럼 제주 자연을 통해 자아 성찰을 이루려는 의도는 자연을 영원한 안식의 공간, 또는 인간이 돌아가야 할 근원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그래서 시인에게 글쓰기의 대상 역시 자연이 된다.

새섬 샅샅 그 너머 수평선 위
서서히 떨어지는 장엄한 순간 앞에
시인들 가슴을 닫고 숨소리도 멎었다.
그 때,
하혈 번진 바다가 하는 말씀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허영의 검정 옷을 벗고 태우고 살라한다.

—「일몰 앞에서」에서

인용 시에서 역시 제주의 자연은 시인에게 무언가를 느끼도록 한다. 시인은 “시인들 가슴을 닫고 숨소리도 멎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장엄한 제주의 자연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자의 목소리를 내세워 자아 성찰을 시도한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또는 시를 쓰는 과정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이다. 초심은 결국, 시인의 지닌 “허영의 검정 옷을 태우고 살”게 하는 힘이며 자아 성찰의 한 방법 또는 시작(詩作)의 방법이 된다.

오영호에게 있어서 제주 자연은 시작(詩作)의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서 시의 의미를 생성한다. 그것은 제주의 자연을 통한 자아 성찰이다. 그가 제주 자연을 통해 자아 성찰을 이루려는 의도는 자연을 영원한 안식의 공간, 또는 인간이 돌아가야 할 근원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그의 시 쓰기는 시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 또는 삶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2) 4·3, 아픔과 신원의 꿈

제주의 작가들이 문학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꼭 한 번 넘어야 할 소재 또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4·3이다. 그만큼 4·3은 제주의 작가들에게 형상화의 대상이며, 중요한 소재가 된다. 물론, 오영호의 『화산도, 이름에 오르다』에도 4·3은 드리워져 있다.

청람색 바다위로
무자년 원혼들이

수평선을 깊어지고 달려와 방파제를 때린다. 때린 자리마다 파랗게 돌아
나는 꿈 낚아챈 갈매기 한 마리 선착장을 한 바퀴 돌고 등대에 앉아 까옥
까르륵 까옥 끄르륵……임 찾는 소리 노을로 다가와

반 백년 굶은 상처를
해부하고 있구나.

—「4월의 서부두」 전문

인용 시에서 시인은 4·3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시인은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를 바라보며, 파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그것은 ‘무자년에 죽어간 원혼=파도’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시인이 서 있는 방파제로 쉽게 밀려드는 파도를 통해 시인은 무자년에 죽어간 원혼에 대한 그리움을 발산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갈매기 한 마리가 선착장을 돌고, 등대 위에 앉은 모습은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그리움의 공간이 된다. 그 공간에서 갈매기의 울음은 단순히 입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인이 4·3때 죽어간 원혼을 찾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인의 이러한 시적 표현은 4·3이 주는 아픔이다. 그 아픔을 시인은 “반 백년 굶은 상처를 해부하고 있구나.”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담담하게 들려준다.

들판 어디에는 꼭꼭 숨어 있어야해.

총알이나 죽창을 피하기 위해선 함부로 하늘을 쳐다봐
 선 안 돼. 두 눈에 불을 켜 산 자들이 너를 만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허리를 꺾어 버릴 거야. 반 백년이 흐른 다랑
 쉬오름자락엔 오늘도 안개비만 내리고 한 발의 총탄에
 4·3의 짐을 지고 북망산천 떠돌고 있는 형님의 제사상
 에 올릴 살진 고사리를

아내는
 절 하듯 절 하듯
 꾸벅꾸벅 꺾고 있다.

—「고사리」 전문

인용 시는 “고사리”를 통해 두 개의 상황을 하나로 제시한다. 시의 전 반부에 나타나는 고사리는 4·3 당시의 상황이다. 시인은 4·3이라는 ‘난’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든 사람들의 모습과 긴장감을 고사리를 통해 형상화한다. 한편, 시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고사리는 현재 시인의 처한 상황이다. 시인은 고사리를 꺾는 아내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4·3의 아픔을 슬며시 꺼낸다. 한편, “한 발의 총탄에 4·3의 짐을 지고 북망산천 떠돌고 있는” 원혼은 시인의 개인사적으로는 형님이지만 달리생각하면, 4·3을 피해 산에 숨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이다. 즉, 허리가 잘릴 수밖에 없는 고사리와 같은 존재이다. 이 속에 시인의 지닌 4·3에 대한 아픔은 내재한다. 그래서 “4·3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시인이며, 그것은 시인의 지닌 아픔이 된다. 4·3의 주는 아픔을 시인은 아내가 고사리 꺾는 모습이 마치 절을 하는 모습과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상황의 아이러니를 만들어 낸다.

4·3은 시인을 비롯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분명 크나큰 아픔이다. 하지만, 그 아픔은 아픔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것은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오영호의 시조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나타난다. 그것은

신원에 대한 소망이다.

한라산자락 심줄들이 봉긋봉긋 솟아오르는

너의 야윈 등을 다시 밟아 오른다

내 발길 이끄는 대로

참회하며

가는 죄인.

반백 년 삭힌 생각 툭툭 털고 피어 있는

제비꽃 춤사위를 그저 보고만 있다

화산석 구멍 속으로 넘나드는 4월 바람.

이제는 탓할 언어마저 멎고 지쳐버린

어머님 젖무덤이 저리 고운 것은

오늘도 신원을 꿈꾸는

꽃이 핀다

꽃이 진다.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 전문

시인은 한라산자락 오름을 오르면서 “제비꽃”과 “반백 년 삭힌 생각”의 교차를 통해 4·3의 아픔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 아픔은 “탓할 언어마저 멎고 지”칠 정도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인은 시인이라는 소명의식을 느끼며 “내 발길 이끄는 대로 참회하며 가는 죄인”처럼 4·3

의 아픈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음에 대한 죄의식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시인은 “참회”의 형식을 통해 과거를 그냥 과거로 묻어 두지 않는다. 시인의 겪은 과거가 4·3을 통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한 아픔이라면, 시인에게 현재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는 신원의 공간이 된다. 시인의 지닌 4·3에 대한 역사 인식의 전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시인은 한라산 오름에 핀 “제비꽃”을 통해 “신원”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꿈은 일회성이 아니라, “꽃이 핀다. 꽃이 진다.”의 반복을 통해 드러나는 끝없는 연속이며, 시인의 신원에 대한 염원이다. 다음에 인용된 시 역시 신원의 염원을 담고 있다.

4·3에 가신 형님 추모의 비 곁에도
신원의 꿈을 향해 너만은 무성하여
오늘도 찢긴 역사를 반추하고 있구나

—「억새꽃, 너를 보면」에서

인용 시에도 신원에 대한 시인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시에 등장하는 억새꽃은 시인에게 신원의 소망을 담아내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그래서 “신원의 꿈을 향해 너만은 무성”하다는 시인의 연술은 결국 시인이 지닌 신원에 대한 소망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시인의 신원에 대한 소망은 시인에게 4·3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

오영호의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에 나타나는 4·3은 아픔과 신원을 담고 있다. 그는 4·3의 아픔을 이야기함으로써 살아남은 자의 참회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행위는 시인의 지닌 신원의 소망이다. 그것은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에 나타나는 4·3시의 의미이다.

(3) 감귤 농사, 농촌 현실의 문제

제주와 감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만큼 제주 사람들에게 감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 각 나라와 체결하는 FTA 등 농업 개방의 현실과 급격한 도시화의 전환은 감귤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다. 그

결과 감귤 농사는 제주 사람들의 현실적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를 통해 나타난다.

햇살은 햇살대로 청굴에 금박 올리고
밤이면 별빛 모아 탕글탕글 단맛 드는
극조생 노랗게 익어도
치진 어깨 들릴까.

—「10월의 감귤밭」에서

인용 시는 감귤이 익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것은 “햇살은 햇살대로 청굴에 금박 올리고 밤이면 별빛 모아 탕글탕글 단맛 드는”으로 표현되는 자연의 섭리이다. 하지만, 시인은 시상 전개의 마지막에서 “치진 어깨 들릴까.”를 통해 감귤 농사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노란 감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힘겨운 농촌의 삶을 더욱 강조한다.

쏟아얀 하늘 아래 살진 굴밭마다

아프가니스탄 언덕 위로 터지는 폭탄처럼

불면의 허수아비들이 똑똑 지는 노란 눈물.

마을길 넘쳐흘러 하수구가 넘쳐흘러

둥둥 자연부락이 떠내려가는 11월의 꿈

거덜난 대학나무들이 포크레인 부른다.

—「11월의 꿈」 전문

1960~70년대 제주에서는 감귤나무에 달린 감귤을 팔아 자식들 대학 학비를 내었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감귤나무를 대학 나무라고 불렀다. 하지만, 수입개방으로 인한 감귤값의 하락은 농민들의 삶에 직접적

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감귤원 폐원, 귤나무 열매숙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귤가격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시도된다. 인용 시는 이러한 제주 농촌의 현실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시인은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농촌 사회가 붕괴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 붕괴의 원인은 다름 아닌,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감귤값이 하락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거덜난 대학나무들이 포크레인 부른다.”라고 표현한다. 이 속에는 농민의 서글픈 마음과 감귤원을 폐원해야 하는 애달픈 비애가 “아프가시스탄 언덕 위로 터지는 폭탄”처럼 서려 있다.

‘올해부터 1번 과와 9번 과도 파치엔 햄서’

‘땡벌에서 적과도 할 만큼 하였는디, 상품은 50%도 안 됴직 하우다.’ ‘경허난 폐원 해블랜하지 아니 햄서,’ ‘내년에 폐원비도 안준 덴 하염쑤다. 경호곡 폐원하민 밭이라도 빌영 농사질 사람도 없덴 허는 디. 아무 것도 안 허민 이 좋은 밭도 역새밭 되어 보는 사람들이 웃을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투덜대는 아내의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동박새 한 쌍 귤 나무 사이로 호록호록 날아다니며

잘 익은 상품만 골라 콕콕 쪼아먹고 있다.

—「귤을 따며」에서

인용 시는 감귤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인과 아내의 대화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대화의 핵심은 감귤 선별의 더욱 엄격해져서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전체 수확량이 50%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감귤원을 폐원하자고 아내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아내를 하고 받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이유로 폐원하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아내의 이야기 속에는 감귤원에 쏟은 정성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재한다. 따라서 감귤 상품이 적다는 아내의 푸념과 잘 익은 상품만 콕콕 쪼아 먹는 동박새의 모습이 빚어내는 시의 상황 설정 속에는 감귤 농사에 대한 시인의 아쉬움이 담겨진다.

이상을 통해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에 나타나는 시작(詩作) 대상의

하나인 감귤 농사에 대한 오영호의 시조를 살펴보았다. 그는 감귤 농사라는 시작(詩作) 대상을 통해 농민 삶의 어려움과 감귤원 폐원에 따른 비애를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그 속에는 제주 농촌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담겨져 있다.

2. 김용길의 제주 대상 시와 그 의미

(1) 서귀포의 의미

지금까지 서귀포라면 막연하게 이국적 풍광, 넉넉한 인심,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 낸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서귀포에서 자라나서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시인 김용길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귀포의 의미와는 변별된 자신만의 의미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의 시를 통해 서귀포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간직하느니
고향같은 친구와
잔 나눠 마시며
情 푸는 인연 새겨둬이니

그대 오신 듯
바람처럼
떠나도 좋고

—「西歸補 招待」에서

김용길에게 서귀포는 “그대 오신 듯 바람처럼 떠나도 좋고”은 공간이다. 그래서 서귀포는 인간사와 관련하여 어떤 미련도, 억압도, 제약도 없다. 그저 처음 있는 그대로이다. 시인의 서귀포에 대한 인식은 서귀포를 “고향 같은 친구와 잔 나눠 마시며 정 푸는 인연 새겨”두는 곳으로 만든다. 이 속에서 시인은 서귀포를 안식의 공간, 인정의 공간으로 스케치한다.

안식의 팔베개를 하고
만선(滿船)의 꿈을 꾀는 사람들

오나, 浦口야, 떠내려 가도 좋아라
마을 안에 너른
바다가 있는데.

—「포구·2」에서

인용 시에서 김용길은 서귀포 사람들을 “안식의 팔베개를 하고 만선의 꿈을 꾀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시인의 정의 속에는 서귀포를 안식의 공간으로 여기는 태도가 담겨져 있다.

한편, 김용길은 서귀포 사람들을 삶의 꿈을 지니고 그것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시인의 이러한 태도는 “포구가 떠내려 가도 좋아라”라는 시적 언술을 가능하게 한다. 시인의 언술 뒤에는 “마을 안에 너른 바다”인 안식의 공간 서귀포가 있기에 가능하다. 서귀포가 안식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다음에 인용된 시에는 생성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봄은 포구로부터
거슬러 올랐다

<天池沼> 누렇게 죽은
물빛이 바윗살에 붙어
푸른 이끼로 되살아 난다

무겁게 가라앉은 靜寂
바람이 침묵을 연다

기어오르는 春氣와
下降하는 물줄기
서로 맞물리는 갯가

西歸浦의 봄은
水門을 열고부터이다.

—「봄의 마을 서귀포·2」 전문

인용 시에 나타나는 “봄은 포구로부터 거슬러 올랐다”는 시구는 자연 현상과는 역전된 표현이다. 시인의 역전되는 표현을 시상 전개와 맨 앞부분에 담은 의도는 서귀포를 생성의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귀포를 이루는 자연은 “푸른 이끼로 되살아”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정적”에서 “바람이 침묵”을 열 수가 있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되살아 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시인이 ‘생성’ 혹은 ‘되살아 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귀포를 생성의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西歸浦의 봄은 水門을 열고부터이다.”라는 시적 언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시인의 의도라 할 수 있다.

김용길의 시에 나타나는 서귀포는 안식의 공간, 생성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이를 위해 시인은 서귀포 사람들을 “만선의 꿈을 펴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마을 안에 너른 바다”로 상징되는 안식의 공간 서귀포가 존재한다.

한편, 김용길은 서귀포의 의미를 생성의 공간에 두기도 한다. 이를 위해 자연 현상과 역전되는 시적 언술을 시도한다.

(2) 濟州 四季와 시인의 독백

서정의 공간 제주를 통해 시인은 ‘무엇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할까?’ 분명, 시인은 제주의 아름다움만을 시로 형상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형상화의 과정에서 시인의 의도가 담겨질 것이며, 그 의도는 독자에게 효용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용길의 시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濟州의 四季를 통해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봄

기다림의 오랜 침묵을
깨우는 아침
淸涼한 이슬들이
새순 가지를 적시고

부끄러운 알몸
씻어내고 씻어 내어도
새로이 돌는
질긴 생명줄
숲의 胎動이여.

—「濟州의 봄·2」에서

인용 시에 나오는 “아침”, “새순”은 새로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주의 봄은 “淸涼한 이슬들이 새순 가지를 적시”며 새롭게 시작된다. 인용 시에 형상화된 ‘이슬이 새순 가지’를 적신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은은하지만 생동감을 준다. 김용길이 제주의 봄을 이렇게 형상화한 의도는 생동감을 통한 생명력의 강조에 있다. 이러한 모습은 “새로이 돌는 질긴 생명줄”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한편, 김용길은 봄을 빗대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백처럼 들려준다. 그것은 “숲의 태동”처럼 자신도 태동하고 싶음이다. 거대한 ‘濟州’라는 숲은 봄이 되면 태동한다. 그 속에는 물론 새로움과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 시인 역시 자연의 습성처럼 자신의 삶에서 새로움과 생명력을 불어 넣고 싶어 한다.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독자들에게 독백처럼 들려준다. 그래서 그의 시는 ‘봄’의 의미로 새로움과 생명력을 담아낸다.

② 여름

안개 숲 속
바람이 숨어들었다
사지를 오므리고

나뭇가지 이파리 틈
또는 풀잎과 풀잎 사이
어딘가로 숨어서
작은 휘파람 소릴 내었다

숲 속은
온통 휘파람 소리다
숲과 계곡을 잇는
自生の 기운들
山 하나 온통 적셔 놓았다.

—「안개 숲에서」 전문

인용 시에는 김용길의 생각하는 여름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안개 숲 속 바람이 숨어들었다 사지를 오므리고”를 통해 모든 것을 숨어 들게 만드는 계절적 속성이다. 또한 “풀잎과 풀잎 사이 어딘가로 숨어서 작은 휘파람 소릴 내었다”는 표현을 통해 작게나마 꾸준히 움직이는 사물의 여름나기 속성을 들려준다. 이러한 두 속성이 오버랩되면서 제주 여름은 그 의미가 생성된다. 그것은 마냥 숨죽여 쉬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감으로써 더 큰 힘을 만들어 내는 ‘작음’의 힘이다.

김용길은 ‘작음’이라는 여름의 속성 위에다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싣는다. 여름은 시인을 둘러싼 것들을 “사지 오므리게” 만들지만,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어딘가로 숨어서 작은 휘파람 소릴” 낸다. 그리고 그 소리는 “自生の 기운”을 얻어 산 전체를 온통 휘파람 소리로 적셔 놓는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시인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것은 작은 것이 모여 전체가 된다는 작고 소박한 진리이다.

③ 가을

1

이제 떠나는가

작은 가슴안
눈물 빛 고운 말씀 남기고
쓰러지는 풀잎
핏발 선 꽃대궁

씨알 떨구고
숲을 버리는가.

...(중략)...

남는 건 정적(靜寂)
외로움의 공포
죽음의 철저한 고독이다.

—「가을 숲 속에서」에서

오름을 감싸 안은 억새와 한라산을 수놓은 단풍은 가을 제주의 아름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인용 시에 나타나는 가을은 분명 제주의 가을과 그 의미가 대조적이다. 인용 시의 가을은 “떠남”을 그 의미로 한다. 그래서 김용길은 가을을 “쓰러지는 풀 잎 핏발 선 꽃 대궁”으로 표현한다. 봄에 새롭게 생성한 풀과 꽃은 여름을 지나 가을에 그 생명력을 다한다. 시인은 이러한 자연의 순환적 모습에 가을 숲의 모습과 떠남의 의미를 겹쳐 놓는다.

이러한 ‘떠남’의 뒷면에는 시인의 느끼는 가을에 대한 정서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외로움”과 “고독”이다. 시인은 “외로움”과 “고독”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을 숲 속에서 있다.

④ 겨울

비인 겨울 숲에서는
바람을 재울 수가 없다

새들은 둥지를 떠났고
넋물도 바윗살에 얼어붙었다

햇살이 비껴 달아난다
싱싱하게 푸르던 봄날의 사랑은
어디 갔는가
무성했던 신록의 그늘과
찬란한 가을날의 영광
그 빛나던 이름들은
이제 모두 어디로 흘러 갔는가

...(중략)...

겨울 숲에 가 보아라
봄, 여름, 가을의
허위에 찬 욕망
假飾 眞面이 어떠한가를.

—「겨울 숲」에서

인용 시를 통해 김용길은 “비인 겨울 숲”은 “바람을 재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새들은 둥지를 떠났고 넋물도 바윗살에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인의 겨울에 대한 사고를 통해 겨울은 ‘비어 있음’의 의미로 남는다.

시인은 비어 있는 겨울의 공간에서 젊음으로 상징되는 “봄날의 사랑”, “신록의 그늘”, “가을의 영광”이 모두 흘러갔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인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젊음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시인은 겨울 숲에서 “허위에 찬 욕망 假飾 眞面이 어떠한가”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진정한 젊음의 무엇인지 느껴 볼 것을 독백처럼 들려준다.

김용길은 濟州의 四季를 통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혹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독백처럼 꺼내든다. 그리고 그 속

에서 계절의 지닌 의미처럼 자신의 느낌을 의미화 한다. 그것은 봄을 통해 새로움과 생명력을, 여름을 통해 '작음'의 지닌 의미를, 가을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을, 겨울을 통해 진정한 젊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3) 제주 바다, 그 깊은 소리

제주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다. 제주 바다를 통해 삶의 애환을 노래한 대표적인 부류는 잠녀이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바다 속 삶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들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함이다. 이러한 잠녀의 삶은 제주 바다와 함께 문학의 소재로 작용한다.

김용길 역시 제주 바다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 잠녀 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삶을 들려준다.

우리 어멍 바당질
 얹고 설운 고생질

<태왁> 안아 똥굴멍
 혼질 두질 들어강

<구쟁이> 흐나 캐면
 아들 생각 절로 나곡
 <오분재기> 흐나 캐면
 딸 생각 절로 나곡
 <전복> 흐나 캐면
 서방 생각 절로 나네

우리 어멍 바당질
 칭원(稱冤) 호곡 서럽곡.

인용 시에서 시인은 어머니의 물질을 “끓고 설운 고생질”로 표현한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까닭은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흔질 두질”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잠녀의 삶에 있다. 시인은 잠녀가 “구쟁이”를 깨면서 아들을 생각 하고, “오분재기”를 깨면서 딸을 생각 하며, “전복”을 깨면서 남편을 생각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시인의 잠녀에 대한 사고는 궁극적으로 잠녀가 어머니이 때문에 “흔질 두질”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당위성을 만든다. 결국,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잠녀의 한 혹은 어머니의 한을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 어멍 바당질 칭원(稱冤) 호곡 서럽곡.”을 통해 시인은 제주 바다의 깊은 소리를 ‘서러움’이라 들려준다.

우리 어멍 물질 흘때
저승길 올라 내리락

눈앞이 캄캄호곡
가슴이 탕탕호영

들명 혼숨 쉬곡
나명 두숨 쉬곡

—「우리 어멍 바당 타령·2」에서

인용 시는 잠녀의 험난한 작업 과정을 들려준다. 그것은 “저승길 올라 내리락”할 만큼 고통스러움이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느끼는 잠녀의 심리 상태를 김용길은 “눈앞이 캄캄호곡 가슴이 탕탕”편다고 표현한다. 잠녀는 물 속으로 작업을 하러 들어 갈 때 숨을 한 번 쉬고 들어간다.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는 숨을 두 번 쉰다. 그 중 한 번의 숨쉬는 행위는 작업 중 참았던 숨을 내몰아 쉬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의 숨쉬는 행위는 사지와 같은 깊은 바다에서 떠오르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안도의 한 숨일 것이다. 시인은 이러한 잠녀의 호흡을 “들명 혼숨 쉬곡 나명 두숨 쉬곡”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숨소리를 통해 잠녀가 지닌 서러운 한의

깊이를 들려준다.

김용길은 제주 바다를 서러움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는 바다 속에서 물질을 하는 잠녀의 애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에게 제주 바다 그 깊은 소리를 듣도록 유도한다. 그 소리는 잠녀가 들려주는 또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한의 소리이며 서러움의 소리이다.

지금까지 김용길의 제주 대상 시쓰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제주를 통해 자신의 독백을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그 독백은 서귀포, 濟州 四季, 제주 바다를 통해 드러난다.

3. 김광렬의 제주 대상 시와 그 의미

(1) 삶을 일깨우는 시 쓰기

자연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일깨움을 준다. 아무리 도시문명이 발달해도 삶의 일깨움은 자연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김광렬의 제주대상 시에도 자신의 삶을 일깨우는 시가 나타난다.

땅속 비집고 툭 불거져나온
 몇 가닥 뿌리의 허연 속살
 뿌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그래야만 된다고 단단히 믿는 나에게
 드러난 뿌리의 허연 속살
 폭우가 휩쓸고 갔을
 칼날바람이 짓쳐 갔을
 그 자리에 꿈틀거리는 수많은 생채기
 필러이는 세월 알지 못할 사람의
 허황된 꿈도 살아 숨쉬네
 뿌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내려야만 한다고 단단히 믿는 나에게
 그 거대한 나무
 수많은 상처 입고도

세월의 한 모서리
굳굳하게 이 땅 지키고 섰네

—「어리목에서」에서

인용시는 '어리목'에서 목격한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또한, 그 이야기는 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된다. 시인은 '어리목'에서 "땅속 비집고 툭 불거져나온 몇 가닥 뿌리의 허연 속살"을 본다. 그 이전까지 시인은 당연히 "뿌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내려야만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시인은 나무의 "드러난 뿌리의 허연 속살"을 통해 시인의 지닌 보편적 진리가 전부 옳은 것만은 아님을 인식한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보편적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인은 나무의 뿌리가 밖을 드러남에 따라 꺾어야만 했을 나무의 아픔을 "꿈틀거리는 수많은 생채기"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생채기를 딛고 굳굳하게 서 있는 나무를 통해 시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그 삶은 비록 험겨운 세상이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삶을 인용시를 통해 "수많은 상처 입고도 세월의 한 모서리 굳굳하게 이 땅 지키고 섰네"라고 표현한다.

불타버린 반쪽 밑동 사이로
힘겹게 새 희망을 차올렸다

희망 앞에서 절망은
날개 잃은 새,

죽음을 용납하지 않는다
선홀리 후박나무

팽팽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기 위해 부르르 몸 떨었다

아픈 상처 밀어내고
또 밀어내었다 오랜 세월

철철철 고름이 흐르고,
고름이 새 생명을 키웠다

상처 입고도 쓰러지지 않는 법을
선홀리 후박나무에게서

나는 배우고 돌아온다

내 썩은 밑동에서 새순이 돋는다

—「선홀리 후박나무」 전문

인용시에 등장하는 “선홀리 후박나무”는 4·3당시 불에 타다 반만 남은 상태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무 앞에서 시인은 삶의 자세를 배운다. 그것은 “희망 앞에서 절망은 날개 잃은 새”라는 표현처럼 죽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다.

한편, “선홀리 후박나무”는 4·3이 가져다 준 폭력성으로 인해 “고름”이 흐르는 아픔 속에서도 랜 세월 아픈 상처를 밀어내며 새 생명을 키워냈다. 이러한 생명력은 시인에게 “상처입고도 쓰러지지 않는”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시인은 “내 썩은 밑동에서 새순이 돋는다”라고 표현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인의 표현속에는 “선홀리 후박나무”를 통해 얻은 ‘살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포된다. 그것은 절망하지 않는 희망과 상처 입고도 쓰러지지 않는 생명력이라는 자연의 가르침이다.

나도 그대처럼 한 천년 웅크려 있게 해다오
당당히 서 있지 않게 해다오
웅이 박힌 모습으로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게 해다오
내 생활 너무 편하여 어느새 나는

삶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눈비에 떨게 해다오 마음까지 온통 얼어붙어
 돌맹이로 내려치면 빠드득
 아픈 소리내며 깨어나게 해다오
 진정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어나는 소리 듣게 해다오
 별빛 내리는 어둠 속에서
 별빛 비수 되어 나를 찌르게 해다오
 가슴 조각조각 찢겨
 눈뜨게 해다오 상가리 팽나무여
 그대 홀로 힘든 세월 버텨왔구나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침묵 지키는 사이
 그대는 앓은뱅이 되어 등등 북 울렸구나
 그대 곁에 나도 앓은뱅이로 있게 해다오
 등등 북 울리게 해다오
 영혼이 박힌 사람이 되게 해다오

—「상가리 팽나무에게」 전문

인용시에 나오는 “상가리 팽나무”는 시인에게 오랜 세월 가장 힘든 모습으로 삶을 지탱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상가리 팽나무”는 “웅이 박힌 모습으로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상가리 팽나무”는 시인에 비취진 겉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어나는 소리”를 내는 존재이다.

시인은 어느 순간 “생활이 너무 편하여 삶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부적절한 세상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침묵”만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인의 생활에서 “상가리 팽나무”는 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결국 “상가리 팽나무”는 시인의 삶에서 “영혼의 소리”로 다가와 “영혼이 박힌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러한 시인의 의지는 시인에게 “상가리 팽나무”와 자신과의 대조를 통해 잊혀졌던 삶의 의미와 참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결국, 시인의

추구하는 삶은 “진정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외칠 수 있는 “영혼”처럼 살아가는 삶이다.

여기서는 제주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김광렬 시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삶을 일깨우려는 목소리이다. 시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보편적 진리만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주 또는 제주의 자연은 시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들려준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시인의 삶을 반성하고, 삶의 진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제주라는 소재 혹은 대상을 통해 나타나는 시인의 순수한 목소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순수 추구의 시 쓰기

김광렬 시에 나타나는 제주 대상 시 중에는 ‘순수’ 추구의 시가 있다. 그가 순수를 추구하는 이유는 다른 시인이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망은 시인에게 시를 쓰게 만드는 힘이 된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는 제주를 대상으로 순수를 추구하는 시인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억새꽃 무더기 속에 파묻히고 싶다
 억새 날선 이파리 섬뚝 살갓 스쳐
 억새 이파리 스쳐간 자리마다
 뚝뚝 돌아나는 핏방울 바라보고 싶다
 …(중략)…
 억새꽃 무더기 속에 파묻히고 싶다
 제주의 온갖 아픔과 그리움이
 몸 뒤척이는 이 억새꽃 들판에서
 나를 확 불질러 버리고 싶다

—「억새꽃 들판에서」에서

김광렬은 인용시를 통해 “억새꽃 무더기 속에 파묻히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억새꽃이 제주의 가을을 상징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억새꽃 무더기”를 순수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억새꽃 무더기”가 순수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서 있는 ‘제주’가 순수의 공간이다. 그 이유는 시인에게는 제주가 지닌 아픈 역사와 그로 인해 희생된 이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순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억새꽃”을 순수의 공간으로 그려낸다. 그 이유는 “억새 이파리 스쳐간 자리마다 푹푹 돌아나는 빗방울 바라보고 싶다”고 표현하기 위함이다.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순수의 공간에서 억새꽃을 매개로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열정은 제주의 아픔과 그리움을 치유하기 위한 시인의 몸부림이며, 순수 추구의 의지이다. 이러한 시인의 순수 추구 의지는 “억새꽃 들판에서 나를 확 불질러 버리고 싶다”를 통해 더욱 강렬하게 내보인다. 제주를 순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시인의 태도는 다음에 인용된 시에도 나타난다.

나 죽어서도 섬을 떠나지 않으리
 등등 제주 바다가 올려대는
 북소리와 살리
 한라산 들녘을 휩쓸고 가는
 바람까마귀와 살리
 어린 시절의 그 곱던 마음과 살리
 황건적이나 도척과는
 살지 않으리
 풀꽃들과 살리
 제주 땅 곳곳을 천둥번개 처가는
 아픈 비명소리들과 살리
 물에서는 살지 않으리
 더더욱 높은 곳은 바라보지 않으리
 희미한 등불만 있으면 좋으리
 불빛 아주 없어도 절망하지 않으리
 캄캄하게 캄캄하게
 어둠 캐며 살아가리

인용시를 통해 김광렬은 “죽어서도 섬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시인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섬에는 “황건적이나 도척”과 반대되는 개념인 “제주 바다, 한라산, 어린 시절의 곱던 마음, 풀꽃, 아픈 비명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어는 제주를 형성하는 시어이며, 궁극적으로 시인의 추구하는 순수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제주는 시인에게 순수의 공간이 된다.

한편, 김광렬은 “물에서는 살지 않으리 더더욱 높은 곳은 바라보지 않으리”를 통해 “물”과 “높은 곳”을 세속의 공간 혹은 물질문명의 공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떠나 비록 “불빛 아주 없는” 곳일지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살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인의 언술 속에는 순수 추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 의지는 “감감하게 어둠 캐며 살아가리”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과 서귀포로 가거라
 아늑하고 따뜻한 신생의 도시를 만나리라
 그곳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몇몇 시인들도 만나리라
 꿈틀리는 바다를 보게 되리라
 썩섬, 문섬 그 아름다운 섬들도 보게 되리라
 파르르 떨리는 눈썹을 수평선에 걸어 놓으리라
 어슬렁 어슬렁 바닷게처럼 거리를 서성이다 보면
 낮설어 보이지 않는 선술집을 만나게 되리라
 시 이야기로 세상 이야기로 취기가 오를 무렵이면
 바다로 뚱뚱 떠가는 몇 방울의 눈물도 보이리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옥한 소리를 들으리라
 작고 더 작은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느껴게 되리라

—「서귀포」에서

인용시에서 김광렬은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에게 서귀포로 갈 것을 권유한다. 시인의 이러한 의도는 서귀포에는 “꿈틀 거리는 바다, 아름다운 섬”이 있어 “아늑하고 따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인의 진정으로 서귀포를 권하는 이유는 서귀포가 지닌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서귀포가 담고 있는 내

적인 순수함 때문이다. 서귀포의 순수는 시인으로 하여금 “몇 방울의 눈물”을 보이게도 하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윽한 소리”를 듣게도 한다. 또한 서귀포는 시인에게 “작고 더 작은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느끼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인에게 서귀포는 “아늑하고 따뜻한 신생의 도시”가 된다. 시인의 이러한 서귀포 인식은 서귀포를 순수의 공간으로 동일시하려는 시인의 태도에 기인한다. 또한 서귀포를 통해 순수를 지향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김광렬의 제주대상 시 중에서 순수의 목소리를 내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시인은 제주를 순수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순수의 공간에서 순수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시인의 순수 추구의지는 “억새꽃 들뜬에서 나를 확 불지려 버리고 싶다”, “깜깜하게 어둠 깨며 살아가리”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음에서는 제주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인식하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역사 인식의 시 쓰기

지금까지 역사는 강자를 위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는 진리처럼 여겼다. 하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강자가 아니다. 그 대부분은 민중이며, 민중 주변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적어도 시인이라면, 이런 역사 인식을 지녀야 한다. 역사의 가장 진지한 관찰자이자 그 자신이 역사적 존재인 시인의 눈은 역사 속의 오랜 굴곡과 비뚤어진 인간 정신을 누구보다도 똑바르게 보고 용감하게 지적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김광렬의 제주대상 시를 통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흙이 밀어내는 역한 주검 냄새
수증기처럼 허공으로 솟아오른다
몽고족은 기어이 김통정을 찾아 왔다
쓰러지는 것은 언제나 약자지만

역사는 강자가 옳았다고 두둔하는 것만은 아니다

—「향파두리 토성을 걸으며」에서

인용시에는 김광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시된다. 그것은 “역사는 강자가 옳았다고 두둔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언술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시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는 결국, 약자를 위한 역사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 강자의 역사였다. 이런 역사는 항상 사람 들에게 강자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했다. 그래서 역사는 제대로 기술되지 못하고 강자를 위해 기술되었다. 하지만, 시인은 역사를 강자의 편에서 보지 않는다. 그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슬픔을 역사로 기술하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점은 그의 4·3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4·3 사건 때

빨강 찻물 들어

너도 오늘 빨강게 피었니 동백꽃아

남편은 그예

산에 들어가 죽어 돌아오지 않고

하얀 서설 위에

기막힌 세월만

파르르 설운 울음 운다.

—「동백꽃」 전문

인용시는 4·3으로 인해 남편과 사별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기를 들려준다. 그 여인의 남편은 4·3때 산에 올라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여인은 오랜 세월 기막힌 설움으로 살아왔다. 그 여인의 삶을 시인 동백꽃으로 치환한다. 그리고 동백꽃을 매개로 여인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이 속에서 시인은 “기막힌 세월만 파르르 설운 울음 운다”를 통해 여인의 삶을 역사로 인식한다. 그 역사는 설움으로 일관된 약자의 이야기이다.

두 번의 결혼 실패하고

눈물뿐인 이모를 나는 안다

4·3사건 나던 이듬해
 빨갱이인 줄 모르고 결혼한 남편
 급살맞아 죽고
 둘째 남편과도 생이별했을 때
 바다에만 오직 바다에만
 아픔의 꽃 피우던 이모
 시골서 나서 시골서 자라
 사상을 아는가 철학을 아는가
 오늘 하루 끼니 채우면 그만
 이골나게 일을 해도 얻는 것 하나 없이
 이골나게 일을 한 조상의 뼈마디
 그 뼈마디 타고 태어나
 밭에 나가 불이 나게 일을 하다가도
 썰물때 맞춰 다시 바다로 가는 이모
 …(중 략)…
 오늘도 굳굳하게 살아가는 이모여
 당신의 그 억척스러운 삶 앞에서
 나는 오늘도 할말을 잃는다

—「이모」에서

인용시에 등장하는 이모의 삶 역시 앞에서 논한 「동백꽃」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약자의 삶이다. 그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구한 삶이며, 조금 더 확대하면 4·3을 겪은 제주 여인의 삶을 상징한다.

제주 여인의 삶은 인용시에 나오는 이모처럼 4·3때 남편을 잃고, 다시 재혼을 하지만 그 생활마저 평탄하지 않은 삶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여인은 “밭에 나가 불이 나게 일하다가도 썰물 때 맞춰 다시 바다”로 가는 힘겨운 삶을 반복한다.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제주 여인에게 사상이나 철학은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광렬은 “시골서 나서 시골서 자라 사상을 아는가 철학을 아는가 오늘 하루 끼니 채우면 그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높은 사상이나 철학이 이모에게는 현실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모를 포함한 제주여인에게에는 오히

려 하루끼니 걱정이 현실적 문제임을 이야기한다.

결국 이모의 삶은 제주 여인의 삶이며, 제주 여인의 삶은 약자의 역사이다. 이러한 역사를 시인은 이모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시인의 이러한 의도는 역사는 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의 이야기라는 역사 인식의 태도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시로 형상화해야하는 것의 시인의 의무임을 자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도 굳굳하게 살아가는 이모” 앞에서 “오늘도 할말을 잃는”지도 모른다.

김광렬의 제주대상 시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 인식은 약자를 위한 역사이다. 그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슬픔을 역사로 기술하고, 그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시인의 역사 인식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인의 삶을 오픈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한다.

(4) 현실 극복 의지의 시 쓰기

현실은 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다. 시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시로 형상화해야 한다. 시로 형상화한다는 것 그 속에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진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여기서는 김광렬의 제주대상 시에 나타나는 현실 극복 의지를 살피기로 한다.

4.3 사건 때 지아비 잃고
 뒤척이는 불같은 몸
 바다에 풀어놓으면
 물살이 그 뜨거운 몸 얼른 받아 안아
 회화질하는 성산포 앞 바다
 눈물겨운 하루해를
 빨아들이는 저 깊고 늪툼한 성기

—「성산포 해녀」에서

김광렬의 생각하는 제주사람들이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인용시에는 그 모습이 형상화된다. 그 현실은 비록 “지아비 잃고 뒤척이는 불같은 몸”일지라도 생활을 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눈물겨운” 삶이다. 이러한 현실은 시인을 비롯한 제주사람들에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만든다.

우리가 닿는 곳 어디인지 알 수 없듯이
다만 현실이 슬픔뿐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참아 이겨낼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꽃잎들은 흔들리며 간다
가다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며
상처투성이 몸으로 간다

—「협죽도」에서

인용시에는 김광렬의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정의가 담겨져 있다. 시인에게 현실은 “슬픔”의 공간이다. 하지만, 시인은 “현실을 참아 이겨낼 수밖에 없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슬픔”의 공간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시인의 표현은 슬픈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현실 극복 의지이다. 그 극복 의지는 “가다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며 상처 투성이 몸”이 되더라도 시인에게 올바른 곳을 향해 가게끔 한다.

4·3 때에도 사람들은 죽창을 들었다
그 중에는 억울해서 죽창을 든 사람도 있었다 한다

그 모든 원통함들이 대숲에는 살아 있다
그들의 뼈 아픈 목소리가 댓잎 끝에 서걱인다

아,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야 한다
알고 보면 다 인정 나누며 살던 이웃인 것을

서로 어우러져 살기 위해
대숲에는 대나무들이 뽁뽁이 모여 살고

우리는 여기 고단한 몸 비비며
두 눈 부릅뜨고 곳곳하게 살아가려 애쓴다

—「대숲에서」에서

김광렬은 대숲에서 4·3 때 죽창을 들어야만 했던 제주 사람들의 억울함을 떠올린다. 그 억울함은 시인에게 현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시인이 서 있는 현실은 “모든 원통함들이 대숲에 살아 있”는 “원통함”의 공간이다.

하지만, 김광렬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야 한다”는 언술을 통해 “원통함”의 현실을 극복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시인의 현실 극복 의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시인에게 더 이상 분열이 아닌 상생의 모습으로 “두 눈 부릅뜨고 곳곳하게 살아”가려 애쓰게 한다. 결국 시인의 현실 극복 의지는 대숲에서 자라는 대나무의 의미를 폭력적 이미지에서 올 끈은 모습으로 치환한다.

여기서는 김광렬 시에 나타나는 제주대상 시 중에서 현실 극복의 의지가 담겨진 작품을 살피었다. 그에게 현실은 침전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시인의 극복 의지는 시인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것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올바른 곳을 향해 걸어가게 한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김광렬은 제주라는 공간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시, 서정 추구의 시, 역사 인식의 시, 현실 극복 의지의 시이다. 삶을 살아가는 시를 통해 시인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들려준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 시인의 삶을 반성하고, 삶의 진정성을 추구한다. 시인은 또한 서정 추구의 시를 통해 제주를 순수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시인은 역사 인식의 시를 통해 시인의 지닌 역사에 대한 정의를 들려준다. 그것은 약자를 위한 역사이다. 그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슬픔을 역사로 기술하고, 그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시인은 현실 극복 의지의 시를 통해 현실이 침전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며, 그 현실에 대한 시인의 극복 의지는 시인에게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제주 시인들의 제주 대상 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제주에 대해 어떤 의미를 담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오영호의 경우는 제주를 대상으로 삼을 때, 그 대상은 제주의 자연, 4·3, 감귤 농사가 된다. 김용길의 경우는 제주의 사계절과 바다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김광렬에게는 제주의 자연과 4·3이라는 역사가 그 대상이 된다.

제주 시인들은 제주의 자연과 역사, 농촌 현실을 통해 각각의 의미를 담는다. 오영호의 경우는 제주의 자연을 통해 자아 성찰을, 4·3의 역사를 통해 신원의 꿈을, 감귤 농사를 통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그 의미로 담는다.

김용길의 경우는 제주의 사계절을 통해 그 의미를 담는다. 그것은 봄을 통해 새로움과 생명력을, 여름을 통해 '작음'의 지닌 의미를, 가을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을, 겨울을 통해 진정한 젊음을 의미로 담는다. 또한, 그는 제주 바다를 서러움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는 바다 속에서 물질을 하는 잠녀의 애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에게 제주 바다 그 깊은 소리를 듣도록 유도한다. 그 소리는 잠녀가 들려주는 또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한의 소리이며 서러움의 소리이다.

김광렬은 제주라는 공간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시, 서정 추구의 시, 역사 인식의 시, 현실 극복 의지의 시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일깨우려 노력하며, 강자가 만든 역사 앞에서 약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그는 제주를 순수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순수의 공간에서 순수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 한편, 김광렬에게 현실은 침전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시인의 극복 의지는 시인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것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올바른 곳을 향해 걸어가게 한다.

이상을 통해 제주 시인들의 제주 대상 시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주에서 詩作활동을 하는 작가라면, 일정 부분에서는 분명 제주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제주는 시인에게 시를 쓰게끔 만드는 요소가 된다. 또한 그것은 시의 소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에 관한

글쓰기 혹은 시 쓰기는 분명, 제주문학을 이루는 밑알이 된다.

- 핵심어: 제주 대상 시, 시의 대상, 지역 문학

<참고문헌>

김광렬. 『풀잎의 부리』. 모아드림, 2005.

김용길. 『서귀포 서정별곡』. 빛남, 1995.

오영호.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 고요아침, 2005.

강영기.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에 나타난 제주(濟州)와 그 意味—오영호論」. 『삶과 문화』20.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강영기. 「제주를 통해 듣는 시인의 독백—김용길論」. 『삶과 문화』21.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강영기. 「제주를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김광렬論」. 『제주작가-16』. 실천문학사, 2006.

강영기. 『한국현대시의 대비적 인식』. 푸른사상, 2005.

<Abstract>

Poetry for Cheju Island by Native Poets

Kang young-gi

This study proposes to examine Chejuean poets' works whose object is Cheju Island itself. That is because apparently Cheju Island has great impact on the native poets in every way.

Oh Young-Ho's main target for the purpose includes the island's landscape, the history of 4·3, orange farming. Through these poetic objects he reveals self-reflection, tragedy-clearing and reality of agricultural society.

Kim Yong-Gil describes the island's four seasons and sea. In his poems spring is the object for new beginning and liveliness, summer for the small, fall for loneliness and winter for true youth. He thinks of Cheju sea as the space of sadness.

The island's nature and history of 4·3 are important to Kim Kwang-Rol as well. The space of Cheju Island is a way of poetic technique to represent his know-how-to-live, lyric stanc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pursuit of alternatives.

Cheju Island itself is the eternal poetic object for the Chejuean literature. It is through the key object that the writers express their own thought and imagination in their literary works.

- Key Words: Regional literature, poetic objects, Poetry for Cheju Island by Native Poets